

## 헛된 인생의 목표

과거 러시아의 수도인 페체르부르크에 아까끼에비치라는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.

사람들이 그 노인에게 "당신의 평생 소원이 무엇입니까?" 라고 묻기라도 하면 그는 매번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매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.

"내 인생의 목표는 아주 고급 외투를 갖는 것이오."

그 노인은 인생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평생 동안 일하고 저축했습니다. 그리고 드디어 그는 80 루블의 돈을 저축하여 꿈에 그리던 그 외투를 샀습니다.

그 날은 노인에게 성공한 날이자 목적을 이룬 날이었기에 큰 기대감과 흥분된 마음으로 가득 찼습니다.

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는 외투를 사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그만 강도를 만나서 비싼 고급 외투를 강탈당했습니다.

그 노인은 매우 절망했습니다. 단순히 고급 외투를 강탈당한 것이 아니라 그는 그의 성공을 강탈당하고 그의 행복을 강탈당했습니다. 그 날 이후 그 노인은 좌절의 늪에 빠졌고 너무 속상한 나머지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.

이 이야기는 고골리라는 사람이 쓴 단편소설 [외투]라는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.

이 노인의 목표는 고급 외투였지만 좋은 아파트, 고급 승용차, 사회의 높은 자리 등 소유에서 인생의 행복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. 우리가 잘 아는 에리히프롬이라는 심리학자는 "소유에 행복이 없다. 행복은 존재에 있다"고 말했습니다. 소유가 결코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데도 우리는 계속 속고 사는 것입니다.

출처 - 짧은 이야기 긴 감동 / 이동원